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11月15日(日) <1987年> 第447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金信煥・編集人 李大京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第39回定期総会開催

표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総会長に 楊炯春牧師選出 未自立教会 補助등을 決議

第三十九回定期総会が 十月二十日(火)부터 二十二日(木)까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十六:33)란 표어아래 名古屋教会에서 開催됐다. 이번 총회에는 總代 百二十七名中 八十七名이 出席했으며 宣敎協約을 맺은 本國 四敎團과 日本基督敎團, 日本基督敎會, 日本NCC 代表等 來賓 多數가 參席했다.



楊炯春 總會長



金榮植 副會長



李永欽 副會長



金安弘 副書記



金君植 書記

定期總會는 朴憲燮副會長의 司會, 金信煥總會長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十六:33) 주제의 說敎, 楊炯春副會長의 司式으로 聖餐 禮典이 있었다.

總會中 外國人登錄法根本改正을 要求하는 要請書, 本國政府, 与野에 보내는 建議書, 靖國에 反對하는 聲明書等을 採択했다.

金信煥 總會에서 選出된 任職員은 다음과 같다.

總會長	楊炯春
副會長	金榮植
副會長	李永欽
書記	金君植
副書記	金安弘
傳道局長	金元治
教育局長	黃義生
社會局長	姜榮一
婦女局長	金德成
青年局長	李海春
財政局長	朱瞰中

人事局長	楊炯春
憲法委員長	李仁夏
試取委員長	尹宗銀
神學委員長	金信煥
指紋拒否實行委員長	金榮植
南北宣敎研究委員長	金桂吳
會計監査	李建豪
會計監査	金鍾吉
總會總務	李大京

伝道局



局長 金元治

組織 金元治(長), 李聖雨(書), 文忠奉(會), 洪永其, 金君植, 李應周, 李正男

一、主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二、目標: 百敎會 開拓達成

三、活動計劃

- ① 無敎會에 敎役者 派遣
- ② 開拓傳道 關東·甲府, 新潟, 盛岡, 筑波
- ③ 地方會 傳道 講習會 (傳道要員, 人材養成) 아슈랑祈禱 修養會
- ④ 開拓傳道修養會

教育局



局長 黃義生

組織 黃義生(長), 李炳球(書), 金鍾吉(會), 高完結, 金信煥, 李昌雨, 李聖柱

一、活動計劃

- ① 宣敎八十周年 敎役者, 長老研修會, 綜合研修會(青年局, 婦女局과 協議한 予定)

- ② 韓日讚頌歌 翻訳 出版 繼續 推進
- ③ 敎會學校 坎리큐람 研究 繼續
- ④ 宣敎八十周年 敎會學校 敎師 研修會(全國)
- ⑤ 어린이주일 行事(一九八八年 六月 奉애主日)
- ⑥ 週間 聖經공부 繼續 全國敎會

社会局



局長 姜榮一

組織 姜榮一(長), 李根秀(書), 裴重慶(會), 金得三, 朴米雄, 金光洙, 李清一(準)

一、活動計劃

- ① 九一年問題
- ② 人權실로지움(社會局, KCC, RAIK共催)
- ③ 指紋捺印撤廢運動
- ④ 生活權獲得運動
- ⑤ 被差別少數者들과의 連帶 (아이누人問題, 沖繩人, 部落問題, 東南아시아에서 온 永吉, 金光洙, 元洪植)

- 定住者
- ⑥ 人權主日의 積極推進 (說敎, 獻金)
 - ⑦ 其他 (外部団体와의 協力關係)

婦女局



局長 金德成

組織 金德成(長), 金得三(書·會), 慶惠重, 金承弼, 金雄圭, 朴善喜, 芮成贊

一、活動計劃

- ① 婦人會全國連合會 事業 活動을 積極 後援
- ② 養護施設(老人) 建設을 積極 後援
- ③ 全國敎師 師母(會) 研修會 實施
- ④ 全國修養會(婦人會) 後援
- ⑤ 어머니主日 獻金을 積極 推進을 呼訴

福音新聞이 發刊하는 總會手帖이 곧 나온다. 內容은 每主日聖句, 敎會·敎師·長老의 住所錄, 七十年史, 歷代任職員名單, 敎會歷, 韓·日祝祭日, 陰歷等이다. 이번 手帖에는 總會가 지키는 各種主日(어린이 어머니 青年 傳道, 人權)도 들어 있다.

青年局



局長 李海春

組織 李海春(長), 鄭然元(書), 李建豪(會), 金昌杰

一、活動計劃

- ① 青年會 活性化를 위한 프로그램 開發
- ② 青年會全國協議會와 個敎會, 青年會와의 對話
- ③ 總會의 未來를 위한 青年의 信仰的 訓練

十月号 休刊

十月号는 事情에 依해 休刊하였읍니다.

一九八七年十一月十五日 福音新聞

財政局



局長 朱瞰中

組織 朱瞰中(長), 金慶得, 徐又春, 南宮理, 裴基秀, 禹永吉, 金光洙, 元洪植

總會手帖發刊

福音新聞이 發刊하는 總會手帖이 곧 나온다. 內容은 每主日聖句, 敎會·敎師·長老의 住所錄, 七十年史, 歷代任職員名單, 敎會歷, 韓·日祝祭日, 陰歷等이다. 이번 手帖에는 總會가 지키는 各種主日(어린이 어머니 青年 傳道, 人權)도 들어 있다.

創業21年



韓国への

引越しは.....

■コスモス■

大阪 ☎(0729)39-6911

東京 ☎(03)501-1487

代表取締役 金慶得

(東京第一敎會 長老)

中川キム医院

大阪市生野区中川3丁目5-2

(ジョイフルマンション1F)

☎(06) 752-4567

《診療科目》

内科(循環器・呼吸器・消化器)
小児科・麻酔科・理学診療科・放射線科

《診療時間》

午前 9:00~12:30

午後 5:30~ 8:00

休診(水・土曜日午後・日曜・祝日)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榮 吉

(福岡敎會 長老)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番

定期總會報告

召天者追悼・名譽長老記念・宣敎의 밤 등 特別礼拝가짐

定期總會 期間中 召天者追悼礼拝、名譽長老 記念礼拝、宣敎의 밤 등 多彩로운 순서로 있었다.

둘째날 午前七時三十分부터 高完結牧師의 司會아래 故吳羽象長老(折尾敎會)故 金光在長老(岐阜敎會)를 追慕하는 追悼礼拝가 行해졌다. 金得三牧師는 追悼礼拝가운데 두長老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敎會를 지켰고 믿음으로 산 貴한 長老였다고 說敎했다.

말에는 水曜日이기도 하 여 새 伝道局長의 說敎로 宣敎의 밤을 가졌다. 李大京牧師의 司會아래 伝道局長에 選任된 金元治牧師가 본 문 使徒行伝 一・八로 說敎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를 本文으로 「땅끝은 이 땅뿐이다. 새 韓國인이 끝이니 전도가 어렵다. 그러나 이런데서 전도하는 것이 使命이다. 끝까지 버텨라」라고 강조했다.

閉會礼拝는 新副會長 金張植牧師의 司會, 新副會長 李永欽長老의 祈禱, 新副會長 楊桐春牧師의 說敎(본 문 使徒行伝 三・一・十)가 있었다. 楊桐春牧師는 「거지는 습관적으로 베드로를

보았으나 베드로는 주를 하여 보라」고 말하였음을 강조 「우리도 關心의 對象을 自己中心에서 他者에게로 옮기는 것이 伝道」라고 설교했다.

금번 總會는 名古屋敎會가 새 敎會堂을 건축한 후 첫 總會 場所로 提供, 宿所는 建中대원이 호텔에서 머무는 등 편리하며 總會의 全日程을 은혜가운데 보냈다.

단 하루 세끼의 食事を 준비하는 것과 名古屋敎會 婦人會의 수고는 너무나도 컸다.

採択된 献議案

一、敎會學校用 카리큘럼 共同作成과 二、三世에 대한 宣敎敎育 對策 確立에 關한件(關東地方會)

提案理由: 在日이라는 特殊한 條件下에서 成長하고 있는 在日同胞 二、三世에 대한 宣敎敎育政策의 確立이 總會의 重要한 課題로 請되고 있다. 總會의 主要한 心事로써 緊急한 對策이 樹立될것을 要請한다.

一、行政書式 統一과 伝道紙의 共同開發 및 印刷配布의件(關東地方會)

提案理由: 現在 敎會內에서 使用되고 있는 各種樣式을 統一 印刷하여 敎會行政의 效率의 運轉을 돕고 共同으로 配布 使用함으로써 効果의 福音 伝道의 媒体로 하고자 한다.

一、東京聖書神學校 設立承認 및 運營費 補助 要請件.

提案理由: 總會 宣敎八十周年을 記念하여 關東地方에 聖書神學校를 設立하여 傳道師, 信徒指導者를 養成하므로 敎會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一、總會 局員 委員 選定에 關한件(中部地方會)

提案理由: 總會任職員 局員 委員을 選任할때 한사람이 두곳이상 重復을 피해 주기 바란다. 이는 總會가 균형 있고 機能의 인 總會가 되기 위한 것이다.

總會는 總會內의 모든 牧師 長老가 어느 部署에서든 活動하도록 索속케 한다. 이는 會員中에서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一、類似宗教對策에 關한件. 提案理由: 周知하는바 最近에 類似宗教(例 統一敎, 元호와 証人等)가 盛行한 問題들을 일으키고 있다. 統一敎는 青年들에게 誘惑을 일으킬뿐만 아니라 敎役者들에게 魔手를 퍼고 있다. 同胞青年도 被害者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問題를 等閑시할수 없는바 總會의 委員會를 構成하여 研究함과 同時에 對策을 세울 必要가 있는줄 알아 이에 獻議한다.

一、地方會 名稱 變更件(關西東部地方會)

提案理由: 臨時地方會(一九八五年十一月二十五日大阪敎會)에서 多數 可決하고 第三十八回定期地方會에서 再確認하여 우리는 獻議한다. 名稱을 關西地方會로 變更를 要請한다.

一、地方會 名稱에 關한件(關西西部地方會)

提案理由: 關西地方會가 東部地方會와 西部地方會로 分立된後 第三回까지 내려왔으나 東部 西部의 各地方會 名稱을 使用함에 異常이 있는것 같아서 本地方會에서는 定期地方會 때의 決議에 따라 本地方會 名稱을 西部地方會로 獻議하오니 許諾하여 주시기 바란다.

一、關西聖書神學院運營費 補助 要請의件(關西東部地方會)

提案理由: 關西聖書神學院은 今年四月부터 昼間部를 開設하여 夜間部와 合하여 十六名의 學生을 두고 있는

新時代에 있어서 敎會의 指導者들을 養成하는 重要한 責任을 擔當하고자 敎育에 專心하고 있어 오니 그 運營費를 補助하여 주시기를 要請한다. (百萬元)

一、伝道主日 設定의件(關西西部地方會)

提案理由: 本地方會에서는 一九八六年 定期地方會 때 決議하고 (一九八六年六月十八日) 今年度 定期地方會 때 再確認대로 (一九八七年六月二十四日) 우리 總會가 伝道에 全力하기 위해 伝道援助 目的으로 매년 五旬節(聖靈降臨主日)을 伝道主日로 設定하도록 獻議한다.

一、礼式書 日語訳(西南)

提案理由: 現在의 礼式書에는 全部 한글로 되어있으나 韓國말을 전혀 모르거나 二、三世들이 洗禮를 받을 때나, 聖餐式을 올릴때 그 禮式을 알지 못하여서 感化 感動을 얻지 못하는 狀況에 있다. 그래서 礼式書中에서도 적어도 聖禮典의 部分만이라도 日語訳을 붙이도록 獻議한다.

一、敎會堂 建築募金 請願의件(關西西部地方會)

▼広島敎會堂

①募金要請額 一億円

②總會內募金 一千萬円

③海外敎會 一千萬円

④建物 四層(駐車場, 礼拝堂, 會議室, 牧師館)

▼沖繩敎會

①總工事費 五千萬円

②建坪 二百坪(三層)

一、宣敎負擔金 引上 및 未自立敎會 敎役者 補助에 關한件(關西東部地方會)

提案理由: 오늘날까지 온 敎會가 宣敎을 위하여 宣敎負擔金을 納入하여 왔으나 보다 더 公平하게 宣敎負擔金을 納入하여 活動되기를 願한다. 특히 우선적으로 未自立敎會에서 수고하시는 敎役者들의 最低生活에 保障되는 補助가 있기를 獻議한다.



總代들에게 따뜻한 식사로 아낌없는 봉사를 한名古屋敎會 婦人會會員들

開拓者の 기쁨

詩篇 126 : 5 ~ 6

朴 珍 烈 牧師(奈良伝道所)

說 敎



國을 막아도 하나님은 다 른 門을 열어 주셨읍니다. 갈길에 막히면 막히고 나 신하게 됩니다. 눈물의 회개와 겸손한 忠誠으로 인내하며 苦難과 試練에서 解放될 때를 기다려야 하 는것은 눈물 뒤에 웃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갈곳을 모 르고 떠나야 하는 것은 不安과 絶望과 絶望을 가져 다옵니다. 順從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외로운 길을 信仰人은 가야만 합니다. 奈良縣의 어디에다 敎會를 세워야 할까. 信者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開拓資金이 있어서 開拓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月費를 연어서 家族이 이사하여 살아가는것이 宣敎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五萬圓에서 十萬圓을 주어도 敎會로 쓰도록 許諾하는곳이 없었습니다. 九個月 동안은 해냈더니 하나님을 믿는 不動產會社社長이 自會社의 物件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 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대로 協力者를 보내 주셔서 끝내는 그建物を 契約하게 되어서 한문없이 四千萬圓의 敎會堂을 마련하게 하 셧읍니다. 本國의 崇義監理敎會는 저를 派遣한 敎會입니다. 生活費만을 보내고 있을때에 敎會堂을 買入하는데에 一千万圓을 支援하여 달라고 要請하였읍니다. 總會에서 募金하여 三千万圓을 助成 計劃이 決議되었읍니다. 契約金 五百万圓을 마련하 기도 어려웠으나 西成敎會와 堺敎會 總會의 協力으로 五百万圓이 모아져서 契約金만을 주고 入住한것이었습니다. 그후에도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貸付를 받아야 하는데 宗敎法人에는 融 資해 주지않았기에 一

人間은 누구나 出生하는 순간부터 老死됩니다. 어머 니의 뜻을 만나게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한가지가 아닙니다. 人間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開拓者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本國에 있을 때도 敎會를 開拓해보지 못하였읍니다. 經驗없는 어린아이 가 大路에 걸어나가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뛰어가 고 옆에서 보던 사람들도 달려가서 危險에서 求해냅니다. 奈良縣에 開拓敎會를 設立하는 責任을 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통해 하여 하나님은 저를 불을 에 주고계십니다. 開拓者는 하나님의 慰勞가 기쁨이 되고 將來의 生命敎援에 대 한 秋收의 약속대로 結實 될 것이므로 기쁩니다. 日本政府는 宣敎師의 入 國을 막아도 하나님은 다 른 門을 열어 주셨읍니다. 갈길에 막히면 막히고 나 신하게 됩니다. 눈물의 회개와 겸손한 忠誠으로 인내하며 苦難과 試練에서 解放될 때를 기다려야 하 는것은 눈물 뒤에 웃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갈곳을 모 르고 떠나야 하는 것은 不安과 絶望과 絶望을 가져 다옵니다. 順從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외로운 길을 信仰人은 가야만 합니다. 奈良縣의 어디에다 敎會를 세워야 할까. 信者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開拓資金이 있어서 開拓地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月費를 연어서 家族이 이사하여 살아가는것이 宣敎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五萬圓에서 十萬圓을 주어도 敎會로 쓰도록 許諾하는곳이 없었습니다. 九個月 동안은 해냈더니 하나님을 믿는 不動產會社社長이 自會社의 物件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너무나 을 찾아보았습니다. 지대로 協力者를 보내 주셔서 끝내는 그建物を 契約하게 되어서 한문없이 四千萬圓의 敎會堂을 마련하게 하 셧읍니다. 本國의 崇義監理敎會는 저를 派遣한 敎會입니다. 生活費만을 보내고 있을때에 敎會堂을 買入하는데에 一千万圓을 支援하여 달라고 要請하였읍니다. 總會에서 募金하여 三千万圓을 助成 計劃이 決議되었읍니다. 契約金 五百万圓을 마련하 기도 어려웠으나 西成敎會와 堺敎會 總會의 協力으로 五百万圓이 모아져서 契約金만을 주고 入住한것이었습니다. 그후에도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貸付를 받아야 하는데 宗敎法人에는 融 資해 주지않았기에 一

株式会社 ニューキング 愛
有限会社 三

取締役社長 張 鐘 善
(名古屋敎會執事)

ニューキング 四日市市野田1丁目965-1
TEL (0593) 31-4771(代)
三 愛 岡崎市大和町字荒田14-1
TEL (0564) 31-8893(代)

尾頭センター 株式會社

代表者 姜 南 中
(大阪敎會長老)
代表者 金 聖 光

名古屋市 中川区 尾頭橋通 2-16
電話 (052) 331-1222 ~ 3番

「十字架の言葉は、滅びゆく者には愚かであるが 救いにあずかるわたしたちには、神の力である」

美術箔押印刷

青山ホット工芸

代表 金 太 休
(西新井敎會 長老)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25-12
電話 (03) 896-4083番

'87世界福音化集会

大阪教会서 개최



김익환 牧師



김영철 牧師



고석희 牧師

大阪教会(金徳成牧師)主催の八七海外福音化特別集会が、八月五日(水)부터九日(日)까지大阪教会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信徒들이 모여 은혜를 받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八七海外福音化 講師로는 김의환牧師(로스엔젤레스한국인교회), 고석희牧師(뉴욕·마라나다교회), 김영철牧師(LA가나나교회)가 수고하셨습니다.

五日밤에는 김의환목사가

아침, 낮, 밤 집회를 세牧師가 각기 담당. 祈禱會, 聖書공부, 特別福音集會를 가졌습니다. 大阪教会 신도뿐만 아니라 關西地方會 各教會信徒들도 많이 참가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다.



東京教會에서 가진 伝道部主催의 伝道세미나

伝道세미나 실시

關東・伝道部主催

關東地方會伝道部(部長金君植)主催의 伝道세미나가 九月二十日(日)午後三時부터 東京教會에서 開催되었다.

第一部礼拝는 伝道部長金君植牧師의 司會 아래 高完結牧師(東京第一教會의 説교가 있었다. 高完結牧師는

임기들의 採點을 해나가는 目的 ③教會成長과 個人 傳道의 方法을 가르쳤다. ④福音傳道者의 資格 등으로 나누워 알기 쉽고 實際的인 講義를 했다. 關東地方會에서는 오랜 기간에 갖는 伝道세미나였으나 많은 信徒들이 參加하여 熱心으로 세미나를 들었다.

第23回全協大会開かる

新代表委員に鄭光男君選出

青年會全國協議會第二十五回大會が、去る九月十二・十三日、大阪KCCにおいて開かれた。全國から十四教會、二十二名の代表員とオブザーバーを含め、約四十名が参加した。

定期大會では、昨年度一年間の活動報告と總結が行なわれた。新年度の活動としては①外国人登録法の抜本改正を求め取り組むことが再度確認された。②本國の新憲法の中に、在日同胞の權利擁護を制定するように要求を出すことを總會に申し入れる。③将来的に全協に専従体制の設置を目指す。

八七年度中央委員は次の通り選出された。

代表委員	鄭光男(大阪)
總務	梁釐(名古屋)
書記	田淑姬(岐阜)
副書記	關西地方會長

研究	張万有(西新井)
傳道	金秀生(名古屋)
出版	康孟寅(西成)
財政	金昭裕(大阪)
出刊	朴大偉(川崎)
財政	崔日承(熊本)
財政	西南地方會長
財政	金愛子(大阪)
財政	李京子(京都)

孔錫享氏 罰金払わず刑に服す

指紋を拒否した理由で、罰金三万円(今年五月十九日判決)の刑を受けた孔錫享氏は、罰金を払わないで、労務留置を選択し、十月二十三日から八日間、岡山刑務所で刑に服することになった。

孔さんは、指紋拒否の理由として「人間らしく生きたい」と訴え、指紋を拒否、罰金2万円を支払わず、8日間の刑に服することを選んだ孔錫享氏

諸職訓練の手引書 ②

言葉と行動が一致する生活

尹 宗 銀 牧師(横浜教会)

①兄弟にプラスになる言葉は言わねばならない。特に教會の諸職はとげのある言葉はできるだけ避けねばならない。人の心を突き刺すような言葉は控え、むしろ相手の悩める心を慰めと励ます言葉でいたわり、不正に陥っている兄弟を正すべきである。心を痛め苦難に当面する者を慰め、教會では到底解決のできない事件の場合でも、なんとかして教會の平安を保てるように諸職は最善を尽くさねばならない。しかしそれは反対に教會の諸職の中にはトラブルメーカーがあつて、小さい事柄を大きく膨らまして問題を作りあげ教會の平安をとりみだす人もあるのを見る。またある諸職は、教會の中で頭をかかえているむずかしい問題をいとも簡単に解決してしまう者もいる。それゆえに諸職は常に教會の平安を図りながら困難な問題を簡単に解決させる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ぬ。

②称賛と激励の言葉を惜しまないことである。人は余計な非難や叱責のゆえに兄弟を失望させることがある。しかし、稱賛と激励は兄弟に働く意欲を振り起こすのである。それゆえに、たとえ兄弟のあやまちや不正を叱責して正す場合であっても、まず、兄弟の長所をあげて稱賛しはじめた後に、彼の過失を気付かすべきである。叱責には必ず愛の心が伴わねばならない。しかし、猜忌の念やジェラシーの強い人は兄弟を稱賛したり尊敬することを極度にいやがるのである。そして兄弟を稱賛することよりも、兄弟をそしめるのを信者たちの間でよく見かけるのである。しかし、まともにできた諸職は、兄弟の良面を喜んで稱賛してあげるし、しくじれば、それを共に苦しめながら正してあげる。諸職は諸職会やその他の會議に積極に参加して、そこで「よし」とすることは、良し」と言い、「否」と思えるものは「否」とはつきり言える。これが諸職の取るべき態度である。何かある事柄に対して自分と利害関係があるとか、または自分と親しい者と関係のある事だと言つて、「はい」と賛成すべきことを「否」と言い、「否」と反対すべきことを「はい」と賛成するようでは教會の建徳に役に立つ諸職にはなれない。諸職は如何なる場合でも常に神の御旨が何であるかを見きわめながら、その御旨に忠実に従ふものでなければならぬ。

(4)言行一致の生活

言葉と行動が一致しない生活は二重生活である。その生活は偽りであり、ごまかしであり、やかましい鐘や騒がしい鏡鉢と同じである。それで教會の信者たちは口上手だと言われる。それは言葉に行動が伴わないものと非難めいた言い方である。信者たちの言葉は信用ならないと非難されることは教會の伝道の門を信者自ら閉じていることになる。言葉を実践に移さない人ほど無実な人はいない、いくら素晴らしい話であっても実現できない言葉ほど安っぽいものはない。ヨハネは「わたしたちは言葉や口先だけで愛するのではなく、行いと真実をもって愛し合おうではないか。」(モハネ第一・3・18)と言つておられる。言葉だけの愛は真の愛ではない。口で言つたことを行動に移した諸職こそ神の求める諸職であり、教會が必要とする諸職である。行いのない信仰は死んだ信仰だと言つているように、言葉はいくら立派でも実践がなければ空言にすぎない。われわれは言葉に気を付けると言つても口を封じるわけにはいかない。お互いに言葉には責任を取らねばならない。内心では愛でいながら、そとづらは愛



者自ら閉じていることになる。言葉を実践に移さない人ほど無実な人はいない、いくら素晴らしい話であっても実現できない言葉ほど安っぽいものはない。ヨハネは「わたしたちは言葉や口先だけで愛するのではなく、行いと真実をもって愛し合おうではないか。」(モハネ第一・3・18)と言つておられる。言葉だけの愛は真の愛ではない。口で言つたことを行動に移した諸職こそ神の求める諸職であり、教會が必要とする諸職である。行いのない信仰は死んだ信仰だと言つているように、言葉はいくら立派でも実践がなければ空言にすぎない。われわれは言葉に気を付けると言つても口を封じるわけにはいかない。お互いに言葉には責任を取らねばならない。内心では愛でいながら、そとづらは愛

株式会社 綜合商社 木サナナ物産

代表取締役社長 金 泰 源
(沖繩教會 長老)
代表取締役会長 李 基 完

本 社 沖繩県北谷町字浜川85(2F)
TEL 098936-6161(代)
FAX 098936-6468

加工貿易

安田商事

代表者 安 秉 鉉

〒862 熊本市水前寺六丁目七-17
電話 0963-81-9051番

宅建千葉県知事登録(4)第3841号

三信商事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権 富 仁
(船橋教會 長老)

不動産部 千葉県船橋市前原西1-25-18
電話0474(76)6181-2番
自 宅 千葉県習志野市谷津7-3-17
電話0474(72)2228番

同胞의 苦難의 삶에 同參한 教会 ①

總會總務 李大京



李 大 京

一九七八年 宣教七〇周年을 맞이했던 우리 教会는 「우리들의 希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새가자 宣教目標을 定한바 있습니다. (1)세대의 教会形成, (2)在日同胞의 새로운 生命指向, (3)世界歷史 속에서 使命完遂 등입니다.

一、業務報告

(1)百教會設立과 教會現況

一九八六年末 現在, 教會數는 六十七個이며 이중에 五個開拓教會는 結果로 있었읍니다. 山梨, 盛岡, 上野, 和歌山等 四開拓地는 宣教師 入國 不許可인하여 中斷狀態에 있습니다. 一九九三年까지 百個教會 設立을 目標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계속 推進함과 동시에 教會의 自立과 實의向上을도 目標로 향하고 있습니다.

二、業務報告

(1)百教會設立과 教會現況

一九八六年末 現在, 教會數는 六十七個이며 이중에 五個開拓教會는 結果로 있었읍니다. 山梨, 盛岡, 上野, 和歌山等 四開拓地는 宣教師 入國 不許可인하여 中斷狀態에 있습니다. 一九九三年까지 百個教會 設立을 目標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계속 推進함과 동시에 教會의 自立과 實의向上을도 目標로 향하고 있습니다.

三、業務報告

(1)百教會設立과 教會現況

一九八六年末 現在, 教會數는 六十七個이며 이중에 五個開拓教會는 結果로 있었읍니다. 山梨, 盛岡, 上野, 和歌山等 四開拓地는 宣教師 入國 不許可인하여 中斷狀態에 있습니다. 一九九三年까지 百個教會 設立을 目標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계속 推進함과 동시에 教會의 自立과 實의向上을도 目標로 향하고 있습니다.

四、業務報告

(1)百教會設立과 教會現況

一九八六年末 現在, 教會數는 六十七個이며 이중에 五個開拓教會는 結果로 있었읍니다. 山梨, 盛岡, 上野, 和歌山等 四開拓地는 宣教師 入國 不許可인하여 中斷狀態에 있습니다. 一九九三年까지 百個教會 設立을 目標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계속 推進함과 동시에 教會의 自立과 實의向上을도 目標로 향하고 있습니다.

五、業務報告

(1)百教會設立과 教會現況

一九八六年末 現在, 教會數는 六十七個이며 이중에 五個開拓教會는 結果로 있었읍니다. 山梨, 盛岡, 上野, 和歌山等 四開拓地는 宣教師 入國 不許可인하여 中斷狀態에 있습니다. 一九九三年까지 百個教會 設立을 目標로 하고있지만 앞으로 계속 推進함과 동시에 教會의 自立과 實의向上을도 目標로 향하고 있습니다.

日本法務省に送る 要望書

在日大韓基督教會第39回定期總會「勇氣を出しなさい。わたしはすでに世に勝っている」ヨハネ十六・三三」というテーマのもと、一九八七年十月二十日(二二日、名古屋教會において開催された。

私たちは、この日本の地に住む同胞に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仕えることを使命とし、来る一九八八年には宣教八十周年を迎えることとなった。

私たちは、一九八五年十月福岡教會で開催された第38回定期總會においても、外国人

と野党に提出する次の要望書が採択された。

第三十九回定期總會において、日本法務省と本国の政府

と野党に提出する次の要望書が採択された。

第三十九回定期總會において、日本法務省と本国の政府

と野党に提出する次の要望書が採択された。

第三十九回定期總會において、日本法務省と本国の政府

と野党に提出する次の要望書が採択された。

韓国政府・与野党에 보내는 建議書

재일대한기독교회제39회정기총회가 十月二十(二二)일名古屋教會에서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十六・三三)란 표어 아래 개최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동포의 고난의 역사에 동참해 왔으며 역경을 당하는 동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소망을 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음은 사명으로써 존엄을 갖

고 살도록 인도해 오고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과거 35년간 일본제국에서 불수 있도록 재일동포를 아직도 식민지 노예와 같은 취급을 하고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배타주의 한국인에 대한 민족 우월주의에 나타난 민족차별의식이다.

한편 본국 정부 여야 양당은 일본의 식민지 예속 수탈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

一九八七年十月二二日

一九八七年十月二二日

一九八七年十月二二日

一九八七年十月二二日

一九八七年十月二二日

平信徒를 위한 聖書공부 ①7

試驗을 이기는 生活

(야고보서 1 : 2~4, 고전 10 : 13)

李 應 周 牧師(宇部教會)

慾心은 魔鬼와 짝하게 되고 誘惑에 빠져서 罪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약 1 : 15, 골 3 : 5, 箴言 16 : 8). 그러므로 慾心을 이기려면 天下보다 偉大하신 그리스도의 마음(心)을 가져야 한다 (빌 2 : 5).

(2)自己的 弱點을 모르고 對面에... 即 自己的 軟弱을 모르고 對面에... 慢하고 驕慢하면 主님을 依靠하지 않고 魔鬼의 誘惑을 이기지 못해 罪에 빠진다. 그러므로 恒常 自己 弱點과 軟弱을 알고 조심해서 主님을 굳게 依靠해야 한다. 그런즉 主님으로 生養하는 者는 넘어질까 操心하라 (고전 10 : 12).

(3)信仰이 強하지 못하기 때문에 (信仰問題) 魔鬼는 恒常 信徒들의 弱點을 노리고 있다 (다니엘 6 : 5, 9, 4 : 17). 信徒들이 真理의 知識에 弱하면 異端者들이 信仰의 疑心을 가지도록 試驗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生活에 게으른 習性이나 慾은 道德의 나쁜 缺陷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試驗한다. 그러므로 試驗거리를 除去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祈禱해야 한다 (다리오 대전서 4 : 1-5).

三、初信者가 많이 당하는 試驗에 對해서

(1)習慣的 偶像崇拜에 빠지 기도한다. 信仰을 가지기 전에 가졌던 習性을 그대로 가지고 教會에 出席하면서 때로는 허탄한 꿈(夢)이나 기에 매이거나 (예레미야 23 : 25, 27, 29 : 8) 손금(掌의線)이나 批一, 觀相에 依해서 聖靈을 認識케 하는 사람이 있다 (고후 6 : 16, 엠 4 : 30).

(2)祭祀問題로 試驗을 받 기도한다. 即 祖上崇拜 問題다. 祭祀는 儒敎의 孝思想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좋 다 그러나 聖靈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또 한 모든 것은 살았을 때 유효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누가 복음 16 : 19, 25) 그러므로 孝도 父母가 生存해 계 실때 孝이고 靈魂이 없는 死後에서 祭하는 祭祀는 偶像崇拜가 될뿐이다. 그렇 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信徒 들은 祖上에 祭를 지 내지 않는다. 그래서 追慕 札拜로 父母의 遺訓을 되 새기며 亡人의 後孫으로 人間다운 人間이 되었다는 決心의 札拜는 드려야 한다. 그런데 追慕 札拜가 옛날가 지는 祖上崇拜의 習性을 버 리지 못해서 祭祀를 對신 하는 것과 같은 生覺으로 札拜를 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 된다. 祭祀를 對신하는 것 같은 行為는 하나님 앞에서 偶像崇拜의 罪가 되 므로 信仰상 아무런 利益이 없다. 그러므로 追慕式도 札拜라는 점에서 어디 까지나 하나님께 對한 信仰을 다짐하면서 敎訓을 받 는 것이 重要하다.

(3)不信 家族들의 逼迫이 있 다. 時時때때로 魔鬼는 나 와 가장 가까운 家族들로부터 衝動시켜서 信仰生活을 妨害하는 境遇가 많이 있다 (누가 복음 12 : 49, 53). 結論적으로 信仰生活에 勝利를 하려면 金보다 더 값 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벧전 1 : 6, 7) 即 여러가지 試驗을 잘 이겨야 한다. 모든 試驗을 이기는 方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 ①慾을 覺悟 한 忍耐心이 必要하며 ②自己의 責任을 다하여 變化된 信徒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繼續 親切과 奉仕를 하며 ③그리고 溫柔한 말로 勸誘를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 我가 堪當치 못할 試驗을 許諾치 아니하시고 試驗 當할 즈음에 (고전 10 : 13) 避할 길을 내신다고 하 셧다.

福岡鉄筋工業株式會社

代表取締役 李 潤 錫 (福岡教會 執事)

自宅 福岡市博多区千代5丁目5-17 電話 (641) 4085番

카나다留學生募集

카나다長老敎에서는 在日大韓基督教會 所屬 敎役者・信徒의 人材養成 및 繼續敎育의 일환으로 二・三世의 青年의 留學生을 받기 했다. 다음과 같이 募集하오니 応募하시기 바란다.

記

留學期間 一年(八八年四月부터)

募集人員 一名

募集締切 十二月十日

問議處 總會事務所 李大京總務까지

東亞工業株式會社

精密製罐・非鉄特殊加工 騒音, 公害対策製品設計製作

(株)久保田鉄工協力會社

代表取締役 南 宮 堯 (北部教會 長老)

〒564 大阪府摂津市南別府町15-15 電話 (06) 349-3545番 自宅 (06) 349-6825番